

풍성한세



SINCE 1986
오병이어선교회

오 병 이 어 선 교 회
몽골선교
30주년



칼럼

오병이어 38년, 한 세대를 지나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 4:17)

지난 6월 오병이어 몽골선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면에서 돌아볼 기회 없이 지나온 몽골선교 30년 세월이었지만 부르심에 순종 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몽골 땅을 걸으며 그분이 하신 일을 본 증인들로 삼아 주셨기에 공동체 지체들과 감사한 시간 들이었습니다.

38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 오병이어 선교회는 현재까지 11개 국가에 장, 단기로 84유닛의 오병이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개척을 포함해서 식품영양 전문인 사역 등으로 다양한 사역을 통해 현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고 있는 것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식품영양 전문인들을 부르시어 오병이어선교회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식량 불안정과 영양 불균형으로 Yellow Window 지역 고통받는 자들을 보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여기며 감당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라오스에 설립된 「보냄받은 교회」 역시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를 이루고 다음 세대 선교의 과업을 이어주는 마중물이 되길 소원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을 단순한 임무로 여기기보다는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함께 품고, 자신의 노력과 힘보다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를 올려 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선교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함께 품고 변화와 성숙의 선교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다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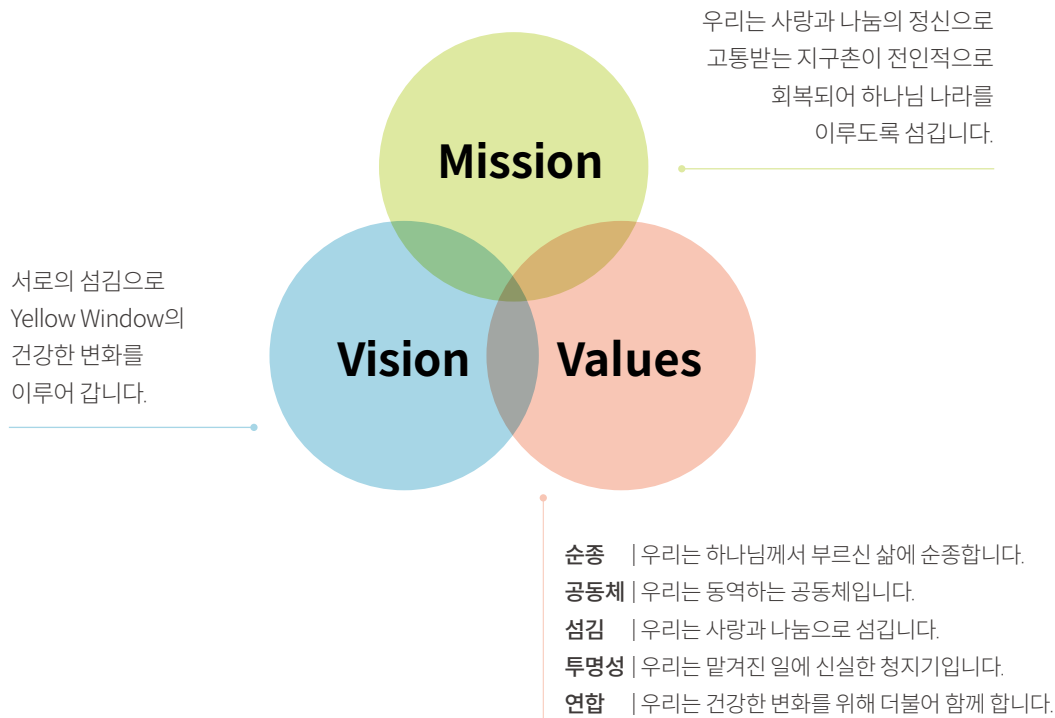
이용숙 선교사

(오병이어선교회 설립, 초대회장. 현_동아프리카 코디네이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막 6:37)

오병이어선교회는 1986년 설립된 식품영양전문인 선교단체로써 식품영양의
상대적 저개발지역인 Yellow Window의 회복을 위해 총체적 선교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중점전략 Mission Strategy

복음, 제자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치유, 회복되어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합니다.

선교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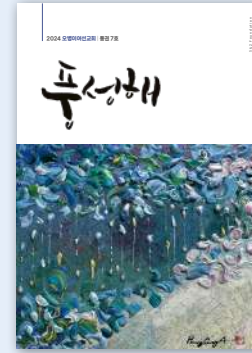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현장을 채우는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으로 열방을 섬기도록 합니다.

헌신 및 파송 | 부르심에 순종하여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합니다.

총체적 선교



「풍성해」는 오병이어선교회의
공식 회지 이름으로 연 1회 발간됩니다.



표지 | 황성아 후원자님 재능기부
명제 |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창 1:7)

2024년 통권 7호

발행처 오병이어선교회

발행인 광미란

발행일 2024년 8월 1일

기획 및 편집 오병이어선교회

주소 [0399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47
(서교동442-5) 수양빌딩

전화 02)322-4630

이메일 52@yellowwindow.org

홈페이지 www.yellow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window52

인스타그램 fngn_52

CONTENTS

- 03 칼럼 이용숙 선교사(동아프리카 코디네이터)
- 06 선교사 파송 현황
- 08 [특집] 오병이어 몽골선교 30주년
- 15 선교기획 시리즈
오현택 대표 (게이트웨이 인터내셔널)
- 18 선교현장 이야기 1
18 보냄받은교회 | 탄자니아 (김인송 선교사)
20 보냄받은교회 | 라오스 (고주영 선교사)
22 보냄받은교회 | 마다가스카르 (유수진 선교사)
- 24 선교현장 이야기 2
동아프리카 지역 선교사 컨퍼런스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 28 오병이어+People
28 김수정 목사 (현-청양교회, 전-오병이어 몽골 선교사)
30 민드바이르 목사 (옵스영원한사랑교회)
31 아므라 자르갈 (경성대 외국인 교수)
- 32 오병이어+News
- 36 재정 보고
- 37 후원자 명단

섬기는 사람들

(재)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회

이사장 이영남

고 문 이용숙 (설립 초대회장)

감 사 김대형

이 사 광미란 김재철 오성호 윤향숙 이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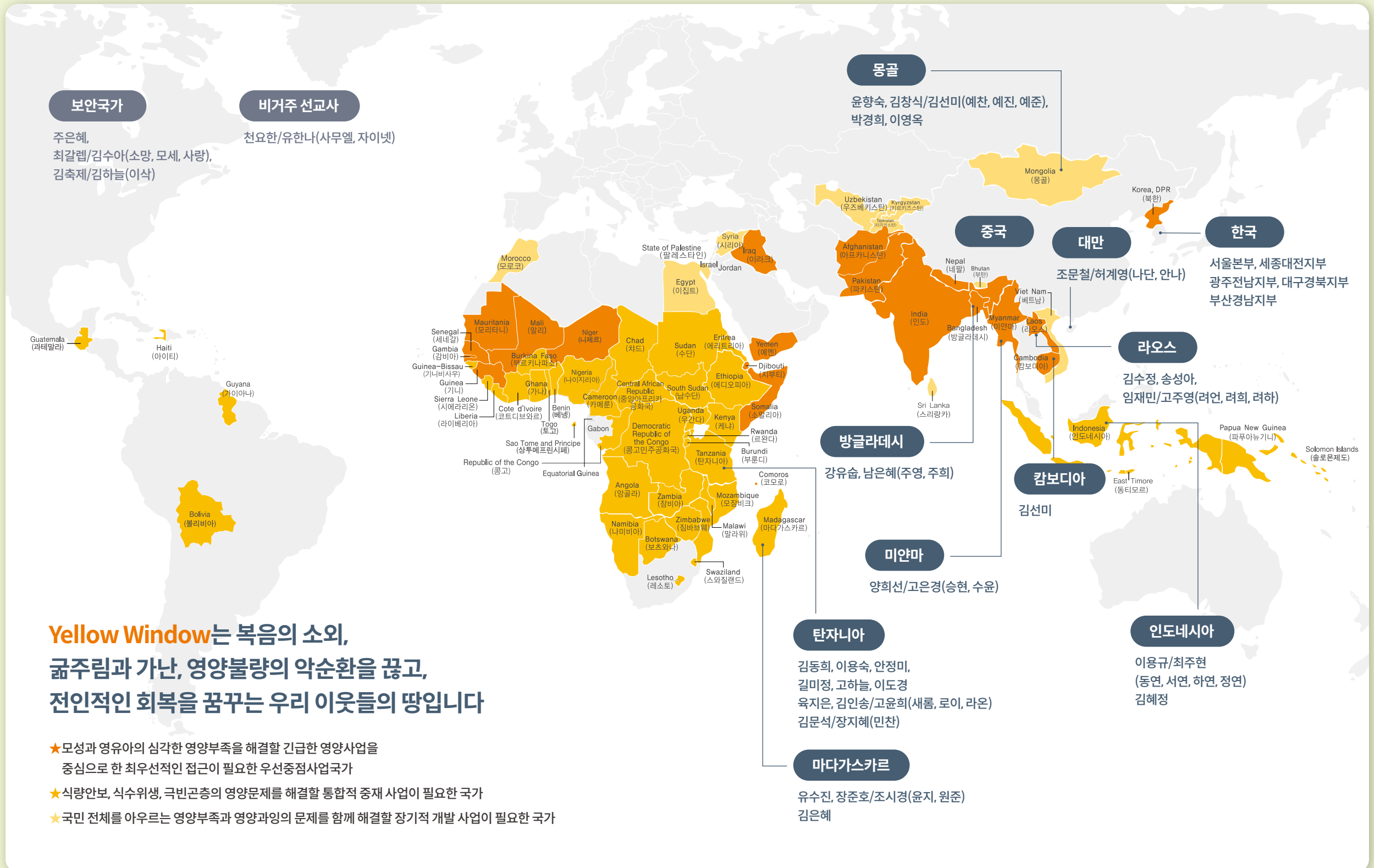
오병이어선교회 대표 광미란

오병이어 해외선교위원 광미란 김미순 마진영 유수미 이육

선교/교육 훈련원 이용숙, 주은혜

본부 사무국 김한나(행정/선교) 한상희(홍보/후원자) 최옥선(선교사 지원)
김영신(행정/선교)

선교사 파송 현황 (2024년 8월 현재)



특집

오병이어선교회 몽골선교 30주년 기념행사

사랑하는 자아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10)



오병이어 몽골선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24년 6월 17일(월) 몽골과학기술대학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 18일(화)에는 ‘사랑하는 자아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6월 19일(수)~21일(금)까지는 몽골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모인 첫날부터 행사를 마친 마지막 날까지 너무도 드라마틱 하게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현장스케치로 소개합니다.

몽골선교는 오병이어선교회 모체로 설립된 (주) 수양급식(현 (주) 수양에프앤지) 1993년 3월 창업 이후, 같은 해 8월 몽골에 진출하여 몽골과학기술대학 학생식당 운영을 시작으로 학술 교류, 식문화 세미나 등을 다양한 사역으로 릴레이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00년 몽골과학기술대학 내에 몽골영양개선연구소(MIN)가 설립되었으며 MIN은 (사) 위드와 협력하여 몽골 영양 개선에 현재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몽골과학기술대학 내 영양학과 과정 개설 이후, 25년 동안 318명의 식품영양 전문가와 41명의 석사가 배출되었고, 이들은 몽골의 각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특히,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준비 단계를 거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몽골 학교급식 시범사업은 2019년 몽골학교급식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과 몽골 정부, (사) 위드가 함께 ‘몽골 초중고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사업’(2022년 12월~2025년 12월)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교급식 전문 인력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오병이어 총체적 선교사역으로 빛어진 복음 사역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몽골 청년들은 다시 교회를 세우고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사역자들로 우뚝 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이 모든 일을 현장에서 부르심의 순종으로 헌신을 이어간 몽골선교사님들과 오병이어 몽골선교전략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현장스케치

| 위드- 몽골과학기술대학 30주년 기념식, 학술대회 그리고 ‘뜨거운 열기’

지난 6월 17일(월), 위드와 몽골과학기술대학이 공동 주최한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몽골의 영양 발전과 학교급식 및 임상영양 개선을 위해 함께한 파트너십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주년 기념식

오전 행사로 진행된 기념식은 몽골과학기술대학 바타르 부총장, (사)위드 양일선 이사장, 몽골 교육과학부 대표, 몽골 보건부 대표의 인사말과 축사로 시작 되었고, 몽골과기대 산업기술대학 토야체체 학장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몽골과기대와 몽골 정부기관에서 위드의 여러 공로자들에게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위드도 파트너 기관인 몽골과기대와 MIN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기념식 마지막 감사인사 순서에서 이용숙 오병이어선교회 초대 회장은 30년 전 처음 몽골을 방문한 이유가 식품영양 전문가로서 몽골선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몽골의 영양 상태가 많이 개선된 경험을 살려 앞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영양을 돕는 몽골 식품영양 전문가가 되기를 도전했습니다. 또한 ‘몽골 보냄받은 교회’ 설립의 꿈을 밝히며, 몽골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길 소망했습니다. 이용숙 초대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몽골 정부로부터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대통령 상인 나이람달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금번 2024년 6월 24일에는 김선미 선교사가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축하 소식은 몽골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는 공동체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몽골 영양학과 개설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료

오후에 진행된 학술대회는 학교 급식과 임상 영양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학교급식 부분에서는 투문자르갈 교육부 학교급식부과장의 오프닝 인사에 이어, 우지성 위드 본부장의 ‘몽골학교급식의 과거, 현재, 미래’ 발표와 앵호테빈 총책임자의 ‘몽골 학교급식의 정책과 향후 전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연아 영양교사는 ‘영양, 식생활 가이드라인 및 운영 사례’를, 국립공중보건센터 톱신바이르는 ‘몽골 어린이·청소년의 영양 상태’를 발표하였습니다.

임상 영양 부문에서는 두잉랩 이현석 대표이사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임상 영양관리 서비스’ 발표, 티비-다이테터스 창립자 모흐톨의 ‘임상 영양 혁신과 결과’ 발표, 최선정 위드 이사장의 ‘임상 영양요법 및 식이요법 매뉴얼-식사지침’ 발표, 마지막으로 남하이-남부, 몽흐자야, 앙케 임상 영양사들은 ‘병원 급식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몽골의 영양사들은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 현장스케치

| 몽골선교 30주년 감사예배와 사역지 방문 그리고 ‘폭우’

+ 감사예배

6월 18일(화) 둘째 날, 한국과 몽골 공동체 가족들이 소망 플라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믿음의 동역자들은 기쁨의 눈물과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민드바이르 목사의 찬양 인도로 90여 명이 참석한 감사예배에서, 이용규 선교사는 요한복음 2장 9절을 본문으로 ‘물 떠온 하인이 아는 비밀’이라는 설교를 통해 30년간 몽골 선교에 헌신한 이들의 믿음의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2부 순서는 특스 자르갈 성도의 마두금 연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영남 오병이어선교재단 이사장의 기념사, 양일선 위드 이사장의 축사로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보인 토호토크 위드 몽골지부장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고, 12명의 이레교회 초창기 몽골 성도들은 ‘맑은 샘물과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윤향숙 오병이어선교회 몽골 지부장은 3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 사역지 방문 (117번 유치원, 일게팀장교회) 과 예기치 않은 폭우

오후에 117번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치원 원장, 교사, 조리원 등과 영양개선 사업을 듣고 둘러보았습니다. 이후 김창식 선교사가 섬기는 일게팀장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저녁에 선교 컨퍼런스 장소인 형허르 휴양지로 가는 길에 예기치 않은 번개와 폭우로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모두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자정이 넘어 몽골 푸르공 자동차로 나누어 타면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3. 현장스케치

| 몽골선교 컨퍼런스 첫째날_‘비 준비하시니’

주은혜 선교사의 인도와 정문수 선교사의 기도로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일영 이사가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부르게 된 인생 찬송 3곡을 간증과 함께 소개하며 찬송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 시간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 여는 예배

여는 예배는 임재민 라오스선교사의 찬양 인도와 예섬교회 허정화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옥 해외 선교 위원님과 최성현 원장님의 특송 후 장준호 마다가스카르 선교사가 여호수아 17장 14-18절을 본문으로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몽골의 첼드마 전도사님이 통역을 맡아 예배를 함께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어제 폭우로 어려운 일을 경험한 것은 선교사로서 ‘광야의 길을 가는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불편하게 살자’를 잊고 살았음을 알게 하신 일임을 기억하자고 하였습니다. 불편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모두 몽골의 첫발을 딛고 걸었던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 교제의 시간_ FNGN 토크 시간

점심 이후 잦은 정전이 발생했으나, 고주영 선교사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2부 교제 시간이 즐겁게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톱신바이르의 첫들을 맞은 딸 오잉슬름을 축하하며 훈훈한 나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FNGN 토크 시간은 무지개교회 바트바이르 전도사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몽골 현지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며,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 고백 하기도 하였습니다.

+ 저녁 강의와 기도회

이용숙 초대회장의 “오병이어 선교사의 영성” 저녁 강의가 정전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강의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사도바울의 비전을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것은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던 것 처럼 이용숙 초대회장도 로마가 있어서 현실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었기에 모든 사역자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이 있어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몽골 사역 30주년 동안 인도하신 사역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비전에서 빚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된 강의에서 사역자들이 갖는 함정인 ‘기쁨이 없는 헌신’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성공과 실패도 모두 똑 같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를 위해 아껴 쓰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묵상, 영성일기 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후 윤향숙 선교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 사역자 영성과 몽골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몽골민족 복음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4. 현장스케치

| 몽골선교컨퍼런스 둘째날_‘화창한 가을’

선교 컨퍼런스 첫째날, 정전으로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전기도 다시 들어오며 따뜻한 햇살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침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으로 시작되었고, 김윤상 위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선교사의 몽골선교 초창기시절 정문주선교사와의 만남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 몽골 문화 체험 청소년 프로그램

금번 몽골 30주년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한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지인 가정방문, 음식 문화체험, 목동 집 방문으로 말타기 등 몽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참여한 청소년들이 몽골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오병이어 몽골 선교사역 및 하나님의 인도하심 강의

곽미란 오병이어선교회 대표가 “오병이어 몽골선교사역 및 하나님의 인도하심”강의를 통해 몽골선교를 30년시간을 통해 인도하신 내용과 사역의 주제를 통해 인도하신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몽골선교가 수양급식(현 수양에프앤지), 몽골 영양개선연구소, 위드 몽골지부, 교육사역, 지방구제사역, 교회개척 사역등 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총체적 선교를 수행하신 하나님의 지혜있음을 강의하였습니다. 몽골 선교, 미래 준비와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 9월 서울 로잔대회에서 다루고 있는 GAPS 주제를 잘 살펴보고 이해를 넓힐 것을 강의하였습니다. 선교사역은 결국 선교지에 서 사람이 선교적 자원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몽골선교 30년 이후 선교 역시 우선적으로 몽골인 선교 리더십 개발과 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FNGN 몽골선교 워크숍_헌신 예배

몽골선교 워크숍에서는 향후 10년 몽골 선교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김창식 선교사님의 교회 개척/제자 공동체 발표, 김선미 선교사님의 식품/영양 사역 발표, 윤향숙 선교사님의 비즈니스 선교 및 이양 발표, 이영옥 선교사

님의 옴스 사역 발표를 통해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보여주신 열매와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헌신 예배에서는 김창식 선교사님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니?”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몽골 3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을 붙들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양희선 선교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며, 몽골선교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고 모두가 “우리는 오병이어 선교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건강 관리강의와 저녁 프로그램

본 행사에 참여한 최성현 원장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강의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풍토병에 대한 의학 지식, 건강검진과 비타민의 역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관리를 기초 지식을 전달 하여 주었습니다, 저녁프로그램에는 송병민·홍주화 위드 전문위원의 부모님과 자녀 온가족이 참여하여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으로 특송을 해주셨고 이후 “우리는 오병이어 I” 가족 시간에는 장준호 선교사의 인도로 송연식 장로님, 오병이어선교재단 김대형 감사님, 위드 최선정·김문규 이사님, 위드 김윤상 감사님, 송병민·홍주화 전문위원이 각각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병이어선교회를 만난 에피소드를 울고 웃으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현장스케치

| 선교 컨퍼런스 셋째 날_‘눈 준비하시니’

컨퍼런스 셋째날에 몽골 기상 관측 이래 60년 만에 6월에 내린 함박눈은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안겨주었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은 송병민 보건 전문위원의 기도로 시작해 김문규 이사의 간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천후로 외부 일정이 취소되었고 오병이어선교 미래 방향성에 대한 질의 응답 및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드 김문규 이사, 양일선 이사장, 러시아 김문수 선교사, 오병이어선교회 김대형 감사, 현지 선교사들이 몽골 사역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하며 열린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영숙 초대회장은 식품영양 전문인 사역으로 몽골선교가 총체적 선교로 빚어진 복음사역에 대해 좀 더 성찰하고 성숙한 복음을 전해야할 것을 곽미란 대표는 지속적인 몽골선교가 되기 위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함을 나누었습니다.

+ ‘우리는 오병이어’ 우리들 이야기

기상 악화로 함박눈을 멋지게 뿌려주신 덕분에 일정이 변경되어 참여한 분들과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현직 몽골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병이어선교회와의 만남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몽골지부 30주년 준비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예성교회의 허정화 목사, 방글라데시 남은자 선교사, 미얀마 양희선 선교사, 탄자니아 김동희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장준호 선교사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신 인생 이야기와 오병이어선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나누며 오병이어 가족을 이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마무리와 감사의 시간

전체 진행 사회를 맡은 마진영 해외선교위원은 몽골 선교 30주년 참석하여 섬기게 된 순간을 감사하였고 윤향숙 오병이어선교회 지부장은 몽골선교를 인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몽골선교 30주년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45명, 몽골 현지 선교사, 통역자 등 총 55명이 참석하여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참여하신 많은 분의 삶의 간증 이야기로 오병이어 큰가족을 이루신 너무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부르심이 들리는 영혼의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기획 시리즈

현대선교와 로잔운동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오현택 대표 (게이트웨이 인터내셔널)

1. 현대선교의 역사

현대선교의 시작을 정확하게 언제로 특징하는 데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겠지만 1792년 영국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의 탐구(inquiry)를 그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등의 서구출신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고 이에 영국 에든버러에서 1910년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가 열린다.

당시 선교사 대회에는 1,200여 명의 서구 선교사들과 20여 명의 비서구 교회출신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거의 없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즉 어떻게 하면 비기독교 국가에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논의 했다.

에든버러 이후에도 세계선교사대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는 주기적으로 열렸다. IMC 대회는 예루살렘, 인도 탐바람, 독일 빌링겐, 뉴델리 등으로 이어지면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복음 전도 보다는 점점 제국주의, 식민주의 같은 서구의 폐단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결국 IMC는 1961년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와 병합을 하면서 현대선교를 진보적으로 이해한다. 즉, 선교를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의 관점에서 점점 사회 이슈의 해결과 인간화의 관점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기 시작하였고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의 일명 “The Great Debate”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때를 즈음하여 1966년에 세계전도집회(World Congress on Evangelism)가 그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의 주도로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1910년 에든버러 대회를 계승하려는 복음주의 선교의 노력이자 로잔대회의 시초였다.

2. 세 번의 로잔대회와 변혁적 개발

1974년 복음주의자들은 선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스위스 로잔(Lausanne)에 모였다. 스위스 로잔은 WCC가 본부를 두고 있는 제네바로부터 열차로 단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도시이다. 첫 번째 로잔대회에서는 당시에 널리 존경받았던 존 스토틀(John Stott)의 영향이 아주 컸다. 이 대회의 주제는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였는데, 존 스토틀은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로 다루면서 선교의 원 모델로서의 예수그리스도를 제시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또한 지상대위임령(Great Commission)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 복음주의 선교를 가장 큰 계명(Great Commandment)에도 집중하도록 설명하여 선교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켰다. 이처럼 74년 로잔대회는 복음에 대한 우선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선교가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 둘 다라는 인식을 복음주의계에 자리 잡게 하였다.

두 번째 로잔대회는 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이 대회의 주제는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였는데, 이 대회에는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 출신 및 여성과 평신도 리더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루이스 부시(Luis Bush)의 유명한 “10/40창(10/40 Window)”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는 대다수의 미전도 종족이 사는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에 선교적 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이었다. 여기에는 미전도 종족에의 선교를 주장하는 선교학자 랄프 윈터(Ralph Winter)의 기여가 지대했다. 그 결과 다양하고 중요한 선교적 이슈를 다루는 300여 개 이상의 선교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사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생겨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로잔대회에서의 남미 출신 선교학자들의 영향과 그로 인해 형성된 총체적 선교(Integra Mission)에 대한 개념이다. 당시 “제1세계”라고 불리었던 유럽이나 미국이 겪고 있었던 문제들과 “제3세계”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국가들이 겪는 문제들은 사뭇 달랐다.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빈곤의 문제, 사회변혁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그로 인한 해방신학, 토착신학, 민중신학 등이 발달하고 있었다. 이에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 르네 빠디아(Rene Padilla)등의 남미 출신 학자들은 제1세계 선교의 담론이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겪는 것을 비판하며 이 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총체적 선교를 주장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혁(Transformation)으로서의 선교가 등장한다. 바로 이 부분이 국제개발협력이 선교와 만나는 부분이다.

브라이언트 마이어스(Bryant Myers)는 변혁적 개발(Transformational Development)을 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한다. 즉 변혁적 개발은 일반 개발학이 다루는 다방면의 개발을 이뤄냄과 동시에 한 개인의 내면의 영적인 변혁도 끌어내는 것이다. 오랜 기간의 빈곤과 삶의 실패로 축적된 고장 난 정체성(Marred Identity)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변혁하는 개발이다. 그리고 그렇게 변혁된 정체성에서부터 새로운 가치관이 흘러나온다. 교육, 위생, 보건, 직업훈련, 인간관계 등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가치를 두게 되는 삶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과 사회적 변혁 둘 다를 유기적으로 이뤄내는 총체적인 선교임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변혁적 개발이다.

이처럼 두 번의 로잔대회를 거치며 형성된 총체적 선교개념은 로잔의 세 번째 대회인 2010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복음주의 선교에 뿌리를 깊게 내린다. “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의 주제 아래 열린 로잔 케이프타운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의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가 선교의 밑바탕을 이루었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다. 이 대회에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젊고, 인종적으로 다양하며, 지리적으로 다채로운 복음주의 리더들이 협력하였다. 특히 세계교회의 인구 통계학적 비율을 정확히 반영해서 세밀하게 기획되었고 다수의 세계교회들에 특별한 발언권을 부여하였다.

100년 전인 1910년 에든버러 대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잔은 2024년 서울에서 그 4번째 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이다. 과연 어떠한 선교적 담론이 기반을 이루고 어떠한 논의들이 전개될지 기대가 된다.

3. 세계 기독교 시대에서 신앙 기반 단체의 개발 선교

이처럼 역사 속에서 “선교”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선교계의 위대한 학자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의 주장처럼 선교는 끊임없이 변화(Transforming)해 왔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선교로 여겼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누군가를 구원시키고 최대한의 회심을 이뤄내는 것이 선교였다. 19세기 중반에는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는 것을 선교로, 한국의 경우 번역과 발전을 이뤄내는 것을 중요한 선교로 여겼다. 최근에는 삶, 생명, 정의, 평화 등이 선교의 담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선교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시대에 따라 선교의 특정 담론이 주류를 이루기는 할지언정 우리의 선교는 총체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기독교의 시대에서는 기독교의 중심이 더는 서구가 아니라 다중심적(Polycentric)이다. 그래서 선교가 서구에서 비서구로 혹은 돈과 힘으로부터 빈곤한 지역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으로나 나아간다(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적으로 일하시는 곳을 잘 분별하고 그곳에 동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Joining in with the Spirit). 바로 이 점이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이 변혁적 개발선교를 할 때 꼭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

세계기독교 시대인 2000년대에 들어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등 전통적 개발도상국들에서 폭발적인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도널드 밀러(Donald Miller)는 이 현상을 세계적 오순절 운동(Global Pentecostalism)이라고 지칭하고 이 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사회적 변혁(Soci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데나 프리만(Dena Freeman)을 비롯한 수많은 학자가 오순절 신앙이 빈곤 국가의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학계에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하고 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악습과 폐단을 끊어내고 자신들의 삶을 회개한다.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개발협력 신앙기반단체(Faith Based Organization, FBO)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개발에 있어서 더는 무관심의 대상이 아닌 핵심적인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체적 선교로서의 변혁적 개발에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인지한 세계은행(World Bank)은 이미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종교계와의 대화를 시작했고 영국은 Religion and Development이라는 국가 차원의 장기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제 FBO들도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자신들의 개발정책과 실천에 진지하게 동참시킬 필요가 있다. 비록 모금의 문제나 종교 편향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신앙과 개발(Faith and Development)을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대선교에서 FBO들이 동참해야 할 총체적 선교이며 로잔의 정신에 참여하는 것이다.

동아프리카, 하나님의 꿈을 향한 기둥이 되리라

동아프리카 「보냄 받은 교회」

(EAChurch, East Africa Apostolos Church)

김인송 선교사 (탄자니아)

2021년 8월 7일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권 선교대회를 치르며 오병이어선교회는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동아프리카 12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귀한 사명에 충성하리라 선포하였습니다. 비전을 향한 전초기지의 역할로 동아프리카 12개국 중 스와힐리어를 나라의 주 언어로 삼고 있는 탄자니아를 선정하였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23년 8월 27일 탄자니아에서 동아프리카로 보냄받은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탄자니아에 파송되어 있던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들은 사역을 함께하는 현지인 직원, 스와힐리어를 배우는 언어학교의 교사 등 다양한 삶의 모양대로 현지의 영혼들과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관계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을 바라볼 때 동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던 중, 하나님은 오병이어선교회 동아프리카 코디네이터인 지명 선교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로 보냄받은 교회는 시작부터 탄자니아 현지인과 함께한 현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스와힐리어로 진행되고, 예배 후에 있는 다과와 교제의 시간에도 한국인 선교사들과 현지인 성도들은



2023년 8월 27일 동아프리카로 보냄받은 교회 창립예배 후 단체사진, 매주 예배는 선교사의 집 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신년맞이 성경통독 모임 후 단체사진

스와힐리어로 소통합니다. 동아프리카로 보냄받은 교회에는 아직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선교회와 가장 가까운 협력 기관인 '전인교회'의 주일 설교 말씀을 선교사들이 역할을 맡아 스와힐리어로 번역하고 자막을 넣은 영상을 만들어 한국인과 현지인이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스와힐리어 자막을 넣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한 주 늦게 주일 설교 말씀을 듣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는 너무나 달고 귀한 말씀입니다.

현지인 성도들도 한국 교회에서 듣는 깊은 말씀에 감동하고 은혜받고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말씀 영상을 따로 챙겨 듣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꿈, 주님과 함께하는 왕의 길 가운데 탄자니아에 교회(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워진 교회가 동아프리카 사역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 맞이 요리의 날 행사



성경통독 모임



성도 심방

라오스, 하나님의 꿈을 향한 기둥이 되리라

라오스 「보냄 받은 교회」

고주영 선교사 (라오스)

지난 2023년 9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주제로 43기 WCS(전인공동체훈련학교)를 라오스 라마나웃 수양관에서 진행하였다. 그 열매로 2023년 12월 3일 ‘라오스로 보냄 받은 교회[Laos Apostolos Church : LAC]’가 창립되었다. 2019년 국제위드봉사단의 섬김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식당이 LAC의 예배 처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에 있는 몇몇 공동체 지체들과 줌으로 연결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오스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포교는 금지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토속신앙을 믿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97% 정도로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만 구성된 오병이어 라오스 지부에서의 교회 창립은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선교’이다.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 라오스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 LAC를 세우셨다.

LAC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가깝게는 마을 이웃과 주민들에게 찾아가 구제와 나눔을



보냄받은교회 창립 준비 모임



보냄받은교회 창립 예배



보냄받은교회 창립 멤버

실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심고, 나누고,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선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 곧 선교임을 알 수 있다.

라오스 현지인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마을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더 나아가 보냄 받은 교회가 언젠가 라오스 전역으로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 마태복음 12장 20절 -

동남아시아에서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 약하고 힘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나라 라오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고, 라오스로 보냄 받은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부활절 계란 나눔



부활절 계란 나눔



부활절 전도지 나눔

마다가스카르, 하나님의 꿈을 향한 기둥이 되리라

마다가스카르 「보냄 받은 비나교회」

유수진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지부)

지난 2024년 3월 3일 주일에 워드 오병이어선교회 마다가스카르 지부 비나센터에서 보냄받은 비나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보냄받은 비나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양육하여 동아프리카 12개국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섬기고자 하는 비전으로 세워졌습니다. ‘비나’는 말라가시어로 꿈, 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꿈마다’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비나센터에 보냄받은 교회를 창립하게 되어 보냄받은 비나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보냄받은 비나교회 첫 성도로 마마센터 관리인 가정(정클로드, 부니, 자녀 에케나, 누메나)과 비나센터 관리인 가정(뚜끼, 타띠, 자녀 만드레시, 이아비안추, 글로리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 가정과 함께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현지에서 관리인들은 직업상 주말에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창립 예배를 시작으로 매주일 보냄받은 비나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와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보냄받은교회 창립 준비 모임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있습니다. 보냄받은 비나교회가 먼저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갈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책임자인 저 유수진 선교사에게 기름부으시고 영적 권위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저는 보냄받은 비나교회 책임자로 섬기면서 동아프리카 12개국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조금씩 품어가며 보냄받은 비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비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영광받으시는 성전으로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함께 꿈꾸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소망합니다.

*마마센터는 지역사회 어머니들의 복음화를 위한 마마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이고, 비나센터는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저마다의 꿈마다’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 함께하는 선교 +

동아프리카 「선교사 컨퍼런스」 현장 스케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에베소서 2:10 -



제1회 오병이어 선교회 동아프리카 선교사 컨퍼런스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안타수에서 ‘함께하는 선교’라는 주제로 2024년 1월 27일(토)~30일(화)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어 총 20명의 선교사와 본부 사역자들이 참여하였다.

#1. 첫째 날

컨퍼런스 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창밖의 평화로운 마다가스카르의 자연경관이 펼쳐졌고 이내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 컨퍼런스를 향한 기대가 부풀기 시작했다.

컨퍼런스 장소인 안타수 로지에 도착하자 정갈하게 세워진 각 숙소(방갈로)와 정원, 우리를 반겨주던 친절환 직원들 그리고, 본부와 각 지부의 선물들로 하나님의 환대와 환영을 받는 느낌을 받았다.



뒤이어 컨퍼런스 내내 매끄러운 진행을 해주셨던 김인송 선교사의 진행과 장준호 선교사의 소망과 감사의 기도, 광미란 대표의 설교로 개회 예배를 드리며 컨퍼런스의 문을 열었다. 광미란 대표의 ‘복음의 증인(눅 24:44-53)’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제자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음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동아프리카에 오병이어 선교회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증인, 오병이어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다.

첫날 저녁에는, 조 시경 선교사의 인도로 오랜만에 만난 각 선교사들의 생생한 사역과 삶, 비전을 듣는 ‘소통과 연합’의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들이 각자의 사역을 나누고 다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도전받고, 사역의 방향을 더 깊이 고민하고 찾으며, 역량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어디서든 나누거나 들을 수 없는 공동체의 깊고 솔직한 조언들을 통해 각자가 볼 수 없었던 관점과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될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임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다.

#2. 둘째 날

둘째 날 아침은 김인송선교사의 인도와 찬양, 그리고 안정미 선교사의 기도 그리고 길미정선교사의 메시지로 복된 주일예배의 문을 열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은 한 몸’을 이룬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흐름을 감사하며, 그 정신과 모토를 계승하고 이어감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장준호 선교사의 ‘중독’ 강의를 진행되었다. 중독 강의를 통해 중독 현황, 중독의 이유, 중독을 이기는 방법까지 경고와 직면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라’를 도전을 통해 다



시 각자의 삶과 중심을 점검하며 하나님만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아프리카 리더십 파송 선교사로 마다가스카르에서 2020년부터 14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조용문 선교사의 '선교 현지 사역의 사례'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닌 우리 자신이며, 증인들은 내 힘을 빼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3. 셋째 날

오병이어 선교회 광미란 대표의 "선교 환경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선교의 역사와 더불어 현재 전 세계의 선교 방향과 흐름들(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외부인 중심의 선교보다 내부인 중심 선교의 중요성, 섬김의 지도력, 돈&프로젝트 중심 선교의 지양)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오병이어 선교회 동아프리카권 사역의 현재를 들여다보며 점검과 확인을 통해 다양성과 보완&추구할 점 그리고 선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 등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강의를 통해 사역지에서 좁혀지고 간혀있던 시각이 열리고 전환되는 시간이었다.



저녁에는 모든 선교사들이 오붓하게 둘러앉아 다과를 나누며 마음과 생각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장기 선교사들의 묵직하고 깊은 고백부터 땅을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선교사님들의 생동감 있고 기대감 넘치는 고백까지 들으며 오병이어 선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보고 누리며 함께 감사하고 소망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며, 한 공동체 안에 하나 됨을 더욱 깊이 누리며 축복하는 시간을 보냈다.



#4. 넷째 날

마지막 날 오전은 동아프리카 코디네이터인 이용숙 선교사의 '동아프리카 사역 비전 및 사역자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첫째로, 열정을 늘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하며, 둘째로 이제 우리의 존재는 '사랑받는 자'를 뛰어넘어 '존귀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이었다. 그 도전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며, 우리의 사역이 아닌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정결 그리고 더 깊은 헌신과 순종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복음의 확장성'을 도전하는 시간이었다. 공동체 이해를 위해 오병이어선교회의 조직과 의미를 광미란 대표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와 더불어 더 깊은 연합과 섬김, 소통을 위한 동아프리카 권역 장으로 장준호 선교사가 선출되었다.

마지막 폐회 예배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을 담아낸 김동희 선교사의 기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선교'로 유수진 선교사의 메시지가 있었다. 더 깊은 헌신은 용서와 축복임을 기억하며 계속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로 친히 열매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병이어선교회의 첫 권역별 컨퍼런스였으며, 많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복음의 확장성을 삶에서 나타내는 자들로, 함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꿈을 그려나가는 함께하는 선교를 소망한다.

모든 소망과 영광을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주께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글_ 김은혜 선교사(마다가스카르)

"잊지 못할 선물"

김수정 목사 (청양교회, 전_오병이어 몽골 선교사)

올해 맞이하는 오병이어 몽골 선교 30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2002년 오병이어선교회 내 전인공동체 학교(WCS)를 훈련생과 간사로 섬긴 후 결혼과 동시에 2003년도에 오병이어 선교사님들이 세운 몽골 이레교회의 후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년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레교회 몽골 현지인들과 함께한 시간은 그야말로 일평생 저희 부부의 가슴속에 오랜 설렘과 도전과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 가난을 통한 절박함과 목마름

2003년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농 현상이 이루어지고 수도인 울란바토르도 낙후된 서민층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에 우리 이레교회 현지인들도 다들 넉넉한 형편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때에 그들에게 신앙은 가난을 통해 생긴 절박함과 목마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18-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



가정 심방

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몽골 이레교회 현지인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이 주는 절박함과 목마름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지금도 그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설렘니다.

#2. 때 묻지 않은 순수함

우리는 현지인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물론 실망스러운 모습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순수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청년 전도여행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부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올 즈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순수함을 마치 신앙의 못 판처럼 내 호흡이 멈출 때까지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순수함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언제나 아이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3. 성령의 임재 속의 예배

1년이란 기간 동안 매주 돌아오는 이레교회 예배는 저에게 정말 한편으론 큰 부담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큰 은혜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손길이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로 설교를 준비해야 했고 강대상에서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당시 이레교회 장년 70명과 아이들 7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도 탄정 피우지 않고 마치 스피치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해맑은 눈동자에 제가 빠져들어 가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정말 한 시간이 1분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청년 전도여행

그래서일까요? 그 당시 몽골 선교를 생각하는 우리 부부가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보다 몽골에서 사역했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잊지 못할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생이란 드라마의 오창장이 장그래한테 한 대사처럼 그때, 그 순간을 향해 “더할 나위 없었다.” 였습니다.

*본 글은 오병이어몽골선교30주년 기념 자료집에 실린 원고입니다.

“저도 복음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민드바이르 목사 (웁스 영원한사랑교회)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트르르바타르 민드바이르라고 합니다. 아내와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웁스아이막 올랑곰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님들에 대해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추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영원한사랑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오운체첵(운향숙)과 홍예문이라는 두 한국 여성을 만났습니다. 오운체첵 선생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 몽골어를 정말 잘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분의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보라양” 믿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보르항”이라 발음해야 하는데 “보라양”이라고 말씀하였기에 저는 “보라양”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이 세상

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오운체첵 선생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예문이라는 또 다른 여선생님은 매우 큰 소리로 찬양을 잘 부르고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몽골어로 열심히 말하지만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찬양팀의 아이들은 홍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하였고, 찬양팀 아이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에 2019년 6월 가정상담 교육에 참석하던 중 이영옥이라는 한국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의 집 자녀들이 ANDE, ANDE /안돼/라고 부르는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상담 교육 시간 우리 아이들이 수업 중에 잘못을 했을 때 “안돼”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돼” 선생님이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Ande Ande 선생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창식 목사님, 김선미, 박경희 선생님 등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운 터 위에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영적 스승인 오운체첵 선생님이 “보라양” (Buraan = 하나님)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저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훌륭한 분들의 뒤를 이어, 우리 가족과 영원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4일 몽골의 480번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병이어선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몽골에서 한국까지의 여정”

아마르 자르갈 (경성대학교 글로벌칼리지 외국인초빙교수)

얼마 전에 오병이어 선교회가 몽골에서 활동한 지 30주년을 맞아 많은 선교사님들이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이 일정을 하루 함께하며, 오병이어 선교사님들이 맺은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열매 중 하나입니다. 저는 몽골 서쪽 끝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한국어학과에 들어갔지만, 한국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동네에 온 한국 사람을 만났으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연락처를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를 졸업했으나, 몽골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국어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란바토르시에 있는 후레대학교 교무처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병이어 선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당시 교무처장이셨던 박경희 목사님의 초대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던 키 큰 남자 분, 지금의 김창식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2010년 부활절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가 때마다 오병이어 단기 팀을 따라다니며 번역과 통역을 했습니다. 2013년, 오병이어 선교회의 소개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몽골에 돌아와 결혼하고 3년 정도 살았습니다.



몽골에 있을 때 오병이어 부산 지부 단기선교 팀과 함께 통역 봉사를 하던 중, 현재의 지도 교수님을 만나 부산에서 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경성대학교에서 외국인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미리 파악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순간 제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제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제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결국 오병이어 선교회와 연결되었습니다. 처음 전도 받을 때, 한국에 처음 갈 때, 다시 한국 땅을 밟을 때 모두 오병이어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몽골 사람들의 삶에 오병이어를 통해 영향을 미쳤습니다.

몽골 땅의 서쪽 끝에서 아무도 몰랐던 평범한 아이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에서 교수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마도 하나님만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획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계획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국내 소식 및 광고

WCS 전인공동체학교 (43기)

2023년 9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 라마나웃 수양관에서 5명의 훈련생이 참여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43기 WCS가 진행되었다.



오병이어 청년 봉사단 1기 파견

2024년 '오병이어청년봉사단'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2024년 1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5개월간 마다가스카르 권오선 청년을 파견하였다.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오병이어청년봉사단'을 통해 타문화권 선교사역에 경험하며 선교적 자원으로 세워져가기를 기대한다.



선교사 파송

2024년 6월 김문석, 장지혜(민찬) 선교사 가정이 탄자니아로 출국하였다. 장지혜 선교사는 결혼하기 전 2012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였으며, 김문석 목사님과 결혼 후 가족과 함께 탄자니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 파송 받은 선교사 가정이 부르심 땅에서 잘 정착하여 계속해서 부르심의 소명을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사역 진행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멘토링 사역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 음

식 만들기, 전통 놀이, 자원봉사활동, 크리스마스 교제, 가정집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여명학교 훈련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재학생 13명과 졸업생 4명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하나교회 3명의 학생에게 생활 지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멘토링 사역 진행

선교 현장에서 다음세대 청년들에게 꿈찾기 멘토링을 지원하고 현재 마다가스카르 10명, 탄자니아 3명, 라오스 2명, 미얀마 3명 몽골30명의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돕고 있다.



「전국기독교식품영양전문인 연합예배」

2024년 7월 6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일터, 삶, 선교'라는 주제 메시지(송동호목사/나우미션 대표)와 '식품 영양 전문인의 소명'에 대한 격려사(양일선/사단법인 위드 이사장), 그리고 학교 영양교사(박희경/수원호매실초등학교)와 병원 임상영양사(박지영/대동병원)로 계신 간증으로 진행되었다. 70여명이 참석하여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일터에서 삶의 예배와 선교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병이어 온라인 기도모임(52 pray on)

2022년부터 시작된 공동체를 품고 년4회 함께 기도하는 오병이어 온라인 기도모임인 52 pray on이 국내외 오병이어 가족들을 중심으로 약 110명 이상이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다. 2023년 9월 방글라데시, 11월 대만 2024년 3월 미얀마, 5월 한국본부 주체로 진행되었다.

오병이어선교회 37주년 감사예배

2023년 8월 25일(목) 오후 7시 오병이어선교회 3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37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부 예배 개봉중앙교회 박종호 목사의 메시지, 2부 감사 주제로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 선교사의 영상 특송과 본부 간사들의 특송 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기쁨과 감사로 드러지는 예배 시간이 되었다.



라마나웃 Yellow Window 기도 모임

위드 영양개선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마나웃 Yellow Window 기도 모임은 2023년 8월 인도네시아 아낙달람종족, 10월 기니비사우, 12월 라이베리아 2024년 2월 시에라리온, 5월 부르키나파소를 위해 기도했다. Yellow Window의 고통과 상황을 보건영양, 지역, 복음 등의 총체적 관점으로 찾아보고 연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기도 모임이 더욱 많은 사람의 동참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오병이어 온라인 기도 모임(52 Pray On)에서 순서를 함께하며 진행한다.

24회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

위드 국내사업팀에서 진행한 '24회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가 2023년 10월 29일(토) 온라인(ZOOM)으로 개최되어 전국 각지에서 식품영양 관련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65명이 참여하였다. 주제 강의와 개인의 관심 분야 맞춰 선택할 수 있는 6개의 선택 강의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준비된 졸업을 위한 세미나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심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시간이다.



국제영양활동가 교육과정 (35기, 36기)

국제영양활동가 교육과정이 35기 2023년 9월 9일~10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36기는 2024년 3월 16일~4월 13일까지 진행되어 개발도상 국가의 영양 활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 보건영양 활동에 대해 배우고, 현지

식품을 이용한 보건영양 개선 활동을 기획해보고 실습해보며 선교현장에서 사역의 도구로 접목할 수 있는 국제영양활동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영양활동가 (아프리카, 아시아) 공청회 실시

2024년 3월 9일 (토), 12일 (화) 국제영양활동가 교육과정 현지화를 위해 커리큘럼을 보완 하고 개발을 하기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사역자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가졌다.



아프리카, 몽골팀: 3월 9일(토)

아시아팀: 3월 12일(화)

정기모임

YW 연합예배 모임 | 오병이어선교회, 위드, 위드 영양개선연구소와 함께 Yellow Window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임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7시)

북한 중보기도 모임 |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를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는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IFNee(International Food & Nutrition) 아이픈이 캠퍼스 모임 | 국제개발, 보건영양,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스터디, 식문화 체험, 예배 등 캠퍼스 모임 (매년 학기 중)

직장부 모임 | 기독교 식품 영양 관련 직장인들의 모임 (매월 첫째 주 오후 8시)

지부 모임 |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지부 정기 모임 (매월 1회)

해외 소식 및 광고



몽골

몽골 읍스 지역 구제사역과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한국의 모 교회 후원으로 2023년부터 몽골 읍스지역 테리 알링숨 기숙사 학생 20명의 숙소 침대 프레임과 침구를 교체, 테스숨 기숙사 학생 90명에게 위생용품 및 과일제공등, 올랑곰칼리지 취약계층(편부모) 소년소녀가장인 학생 20명의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2024년에도 계속적으로 올랑곰 칼리지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랑볼라숨 유목민 30가정, 말친숨지역 가정방문을 통해 식료품과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활동을 복음사역과 함께 하고 있다.



몽골 선교 30주년 기념행사

2024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간 '사랑하는 자아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몽골선교 30주년 기념행사가 학술대회, 감사예배, 선교컨퍼런스로 진행되었다. 기념행사에는 현재 몽골에서 사역하고 선교사 가정을 비롯하여 몽골 현지 사역자 가정, 과거 몽골 선교사, 오병이어선교회 사역자, (사)위드 사역자, 후원자를 포함하여 65명이 참여하였고, 그 외 파트너 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행사에 함께 참석하여 축하했다.



캄보디아

소망의 새 빛 교회 재 정비 중

소망의 새 빛 교회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 이후 2023년 8월 개봉 중앙교회 비전트립팀과 함께 건물 보수 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되었고, 인근 초등학교 전도를 통해 많은 어린이가 교회를 찾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24년 7월 다시금 교회의 예배 회복과 현지 사역자 세우기 등 교회 재 정비를 위해 힘쓰고 있다.



라오스

폰땡땡마니 초등학교 발전 기금을 위한 바자회 행사

2024년 2월 폰촌교회와 주변 선교사님들이 모아주신 물품을 가지고 '폰땡땡마니' 초등학교에서 바자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학교는 공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사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학교 내의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생 각할 수도 없는 상황 이었다. 수익금 전액은 학교 운영과 발전을 위한 일에 모두 사용될 예정이며,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가르침과 배움의 동력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



마다가스카르

제1회 동아프리카 선교사 컨퍼런스 개최

2024년 1월 27일(토)부터 30일(화)까지 3박 4일간 마다가스카르 안타수 로지에서 오병이어선교회 파송 선교사 16명(자녀를 포함하여 탄자니아 11명, 마다가스카르 5명)과 본부 사역자 2명이 함께하며, '함께 선교'를 주제로 동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깊은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마다가스카르 장준호 선교사가 동아프리카 지역 권역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5년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2회 동아프리카 선교사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헌신의 길로 한걸음 내딛는 마다가스카르 청년들

청년·대학생 사역하고 있는 나니아센터는 청년양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양육받던 청년 멤버 중 5명을 선발하여 2024년 8월 5일~9월 13일 까지 탄자니아에서 열리는 제1회 동아프리카 WCS에 참여하게 되었다.



탄자니아

테오필로 키산지 대학(TEKU)와 오병이어선교재단 (S&F Foundation) MOU 체결

지난 2024년 5월 29일(수) 탄자니아 테오필로 키산지 대학 (TEKU)과 오병이어선교재단이 동아프리카 지역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인 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MOU 체결을 하였다. 앞으로 위드 영양개선 연구소와 학교급식 전담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영양전문인 선교 자원을 발굴, 훈련하는 기회가 되어 동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영양전문인 선교리더십을 양성 배출하고자 한다.



14기 NIS(Nutrition Intervention School) 탄자니아 현장실습

식생활 영양개선 전문가 학교(NIS) 14기가 2024년 5월20일(월)~8월 9일(금)까지 개최하였다. 금번 14기 NIS 는 탄자니아 선교사들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학령기 아동대상 영양중재' 과정인 학교급식 관련 정책,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이해관계자미팅, 학교급식 현황을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며 현장 프로젝트 실습은 7월 14일(월)~27일(토) 까지 탄자니아 음베아에서 실시되었다. 탄자니아 영양전공자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영양위생 복음캠프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TEKU 기관과 영양전문인 양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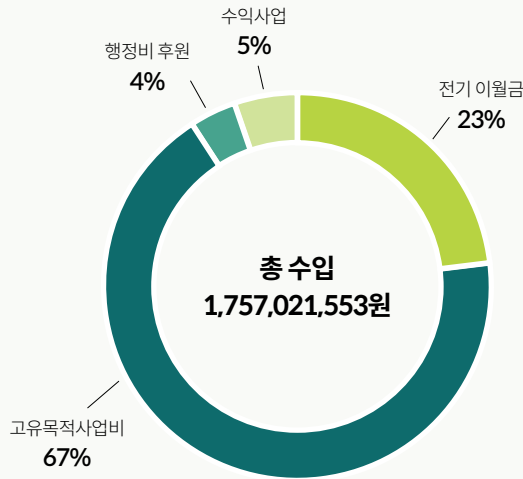
오병이어선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선교회는 내부 회계 전문가 감사를 통해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 받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입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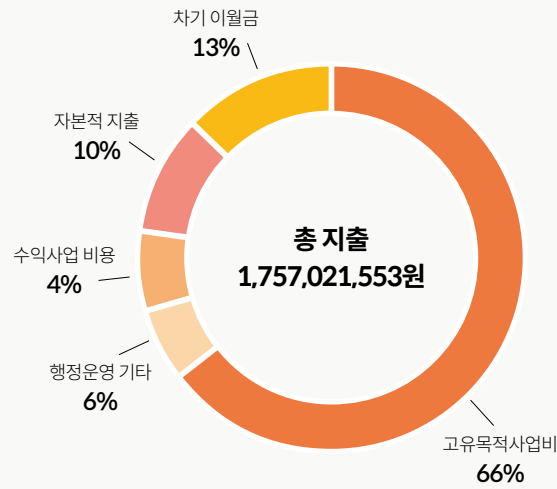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율
전기이월금	400,980,410	23%
고유목적사업	1,156,997,719	66%
행정비후원	75,814,734	4%
수익사업	89,779,644	5%
자본적수입	33,449,046	2%
합계	1,757,021,553	100%



사업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비율
고유목적사업비	1,168,304,980	67%
행정운영기타	109,304,622	6%
수익사업비용	67,715,831	4%
자본적지출	180,533,013	10%
차기이월금	231,163,107	13%
합계	1,757,021,553	100%



개인 후원 +

강경,강경숙,강경자,강미희,강석균,강성경,강영효,강오순,강유선,강정자,강주영,강현중,강효범,경혜수,고난희,고명상,고미혜,고성남,고성민,고성욱,고성철,고성혁,고수희,고승희,고유건,고유리,고윤영,고은경,고주영,고태영,고하늘,고하나,곽계순,곽근혁,곽미란,곽성순,곽호영,구교형,구태희,권미령,권상희,권선아,권숙희,권영대,권오선,권은지,권태구,기진석,김미영,김미정,김경옥,김경자,김경희,김광현,김구환,김귀옥,김금순,김금자,김기숙,김길영,김대영,김도원,김동찬,김동희,김두현,김명자,김명희,김문규,김미경,김미나,김미란,김미소,김미자,김민수,김민정A,김민정B,김민지A,김민지B,김법철,김병성,김병준,김병학,김복임,김상미,김사론,김석재,김선미A,김선미B,김성열,김세원,김세창,김소임,김수경,김수빈,김수영,김수정,김수정A,김수정B,김수진,김수현,김수희,김순덕,김슬기,김승영,김승원,김승주,김신래,김아름,김양순,김여일,김연옥,김영식,김영신,김옥자,김옥주,김옥태,김용관,김원자,김원철,김윤섭,김윤수,김윤실,김윤희,김은빈,김은숙,김은혜,김은화,김이화,김인송,김재실,김재임,김정근,김정태,김정효,김정희,김종길,김중환,김지선A,김지선B,김지은A,김지은B,김지현,김지혜A,김지혜B,김지환,김진아,김진영,김진자,김진희,김찬익,김창성,김철하,김추이,김태운,김태훈,김판준,김학선,김하나,김향곤,김현성,김현이,김형기,김혜보,김혜숙,김혜영,김혜정,김효정,김홍선,김효선,김훈,김희례,김희숙,나세연,나영미,나정철,나충곤,나향남,남상욱,남수아,남정임,남정현,노수희,노숙희,노주연,노주원,노태성,두재영,류정숙,마진영,문경하,문능숙,문미연,민지숙,박가희,박근희,박경미,박경숙,박경희,박기쁨,박덕현,박돌선,박명희,박병준,박병기,박봉연,박상엽,박상은,박상준,박선미,박세준,박세현,박소현,박수경,박수부,박양희,박연아,박연진,박영애,박영조,박영희,박용문,박용자,박원일,박유리,박일화,박재상,박정미A,박정미B,박준희,박지영,박진석,박진아,박찬우,박춘자,박태신,박한중,박혜정,박현숙,박현희,박하나,박혜숙,박혜옥,박호,박효봉,반주영,방숙진,배명숙,배수민,배영남,배지원,배하은,백현지,북혜진,서경순,서동훈,서명구,서명옥,서미경,서연경,서유지,서효진,석수연,성명규,성현숙,소경섭,손병운,손영삼,손지원,송경옥,송경은,송기원,송미란,송병민,송성빈,송성아,송성은,송연식,송인혜,송지연,송지현,송진숙,신경순,신기선,신민서,신연숙,신옥금,신인순,신준휘,심성자,심재원,안기용,안나진,안동철,안미라,안미애,안미진,안병숙,안은경,안자현,안정란,안정미,안정민,안정아,안정애,안정진,안치훈,양동웅,양만길,양민정,양보희,양옥수,양은주,양인용,양일선,양희선,염광훈,염그레이스,염성식,염혜란,에스더,여경남,오경,오명순,오병선,오숙진,오영훈,오은주,오현,우미혜,우지성,원용일,원준희,유갑숙,유명숙,유병진,유상근,유수미,유수진,유영미,유영선,유영실,유예지,유용서,유인숙,유정훈,유지선,유진덕,유현선,육도현,육수명,육지은,윤대환,윤미희,윤삼열,윤상진,윤성미,윤소연,윤숙련,윤영선,윤유인,윤정현,윤종철,윤주길,윤필,윤하진,윤향숙,윤혜영,윤대웅,이강근,이경애,이경일,이광석,이금미,이기호,이길형,이남임,이덕호,이도경,이동숙,이라영,이라희,이명숙,이명희,이미선,이미영,이미정,이민수,이병철,이보라,이상민,이상순,이상원,이상화,이선옥,이선자,이성수,이세연,이소현,이소희,이송이,이수현,이수희,이승복,이승철,이승희,이신화,이아영,이아영,이영남,이영림,이영숙,이영옥A,이영옥B,이영혜,이영희,이윤규,이윤숙,이윤옥,이윤경A,이윤경B,이윤주,이은경,이은아,이은용,이인숙,이일영,이재성,이재우,이정수,이정화,이정희,이종미,이종숙,이주섭,이지영A,이지영B,이지영C,이지혜,이진선,이진영,이찬영,이채은,이천호,이한길,이현정,이현주,이혜경,이혜민,이혜옥,임기환,임길순,임동혁,임미영,임세영,임승재,임용재,임은경,임은영,임민정,임재민,임재훈,임철수,임희진,장문일,장수남,장연화,장예림,장지혜,장철순,장철현,장태환,장한우,장혜미,전민채,전선화,전유자,전진실,전형준,정고은,정규일,정명문,정성환,정신애,정아림,정옥경,정은숙,정인숙A,정인숙B,정인정,정재균,정태숙,정택순,정현영,정희숙,조귀호,조미영,조민승,조봉희,조성윤,조은경,조인자,조준형,조창범,조철희,조하나,조하나,조향미,조희훈,주범순,주사랑,주영란,주재상,주지은,진근자,진민정,차영빈,채성숙,채지희,천진광,최기숙,최미화,최민숙,최서준,최석봉,최석현,최선미,최선영,최선정,최선주,최선혜,최성현,최숙희,최언영,최영상,최영숙,최영태,최예영,최옥선,최용임,최유미,최이안,최자영,최재호,최정연,최정호,최진철,최취길,최현미,하상철,하태균,한경렬,한경주,한국일,한복기,한봉원,한상희,한세희,한숙연,한은경,한은택,한현열,함보미,함창성,허계영,허윤영,허은영,허인덕,허정아,허정화,허진혁,현경빈,현석진,홍기현,홍성희,홍순도,홍순름,홍승진A,홍승진B,홍예문,홍재호,홍추자,황미숙,황보진향,황상미,황선아,황성아,황익근,황장선,황정숙,황지은,황현영,황혜경,무명231(830)

기관·단체 후원 +

가나안소망교회,개봉중앙교회,고수교회,광양영주교회,광주은광교회,남서울은혜교회,남서울은혜교회청년부,늘사랑교회,단비교회,합신세계선교회,대현교회,더불어함께교회,도심리교회,동성교회,동신교회,동현교회,목자교회,부르심교회,복서물교회,분당우리교회,사랑의교회,삶이기쁜교회,상해은혜의교회,새길감리교회,새벽이슬교회,서울영동교회,서초동교회,서현교회,선일선교회,세계로교회,수원제일교회,시흥동산교회,아름다운교회,안홍교회,영락교회,영흥교회,예들순복음교회,예성교회,예수선교회,예장기쁜소식교회,용두동교회,용두동교회남선교회,용두동교회청년부,월성교회,은광교회,은성교회,은혜나눔교회,의정부중앙감리교회,전인교회,전주강림교회,중원경장로교회,참빛교회,참행복한교회,척국교회,천안갈릴리교회,천안한빛감리교회,청양교회,청운교회,인천청운교회,초량교회,팔복교회,팔송정교회,평촌교회,포항성결교회,푸른서현교회,하늘사랑교회,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해남삼일교회,해성교회,해오름교회(71)

(주)선진엔텍,(주)이엠데이터,경원가천대,기드온,대구BBB,미주복음방송,밀알회,부고운나라,샌두의정부점,아시아미션,오병이어광주전남지부,웨슬리재단,(사)위드,한빛약국(14)

물품 후원 +

- 기관·단체: 달지교회 신수교회 아시아미션(3)
- 개인: 강하은,김은정,김대형,김재철,김철재(양일선),김판준(최은진),김희선,마진영,송미란,송병민(홍주화),송진선,신연숙,신영자,이덕호,이영남,이영수,이일영,이정수,장지혜,정승원,정인숙,조현창,주지은,최선정,최성현(이옥),최숙희,최인숙,최혜정,허정화,황성아,황혜경,황혜옥(31)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 후원 안내

오병이어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귀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선교회 모든 선교사는 각각 선교사별 신한은행 전용 후원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 재단' 예금주 이름이 앞부분만 나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나다순)

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0	본부 사역자	신한	100-035-952967	14	양희선 고은경	신한	100-036-121280
1	강순철 남은자	신한	100-036-120680	15	유수진	신한	100-036-121228
2	고하늘	신한	100-036-121146	16	육지은	신한	100-036-121363
3	길미정	신한	100-036-120520	17	윤향숙	신한	100-036-120553
4	김동희	신한	100-036-121299	18	이도경	신한	100-036-121153
5	김문석 장지혜	신한	100-036-120650	19	이영옥	신한	100-036-121242
6	김수정	신한	100-036-121185	20	이용숙	신한	100-036-121203
7	김은혜	신한	100-036-120464	21	임재민 고주영	신한	100-036-121250
8	김인송 고윤희	신한	100-036-121178	22	장준호 조시경	신한	100-036-120635
9	김창식 김선미	신한	100-036-120756	23	천명길 유 경	신한	100-036-121235
10	김혜정	신한	100-036-120724	24	최갈렙 김수아	신한	100-036-121330
11	박경희	신한	100-036-120642	25	주은혜	신한	100-036-120578
12	송성아	신한	100-036-121324	26	(캄) 김선미	신한	100-036-120763
13	안정미	신한	100-036-121371				

오병이어 함께하기



함께해 1 | 선교사 / MK 후원

오병이어 선교사 및 선교사 자녀를 후원합니다. 전용 후원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02-322-4630 선교사관리부



함께해 2 | 해외장학 멘토링

가난으로 꿈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꿈 찾기 멘토링을 선물해주세요. * 1달란트 3만원
신한은행 100-036-02716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 입금자명: 멘토링000



함께해 3 | 사역자(현지인 사역자) 후원

준비된 현지인 사역자 후원은 선교사 한 가정의 파송 효과입니다.
현지 사역자 사례비 20만원 /월

신한은행 100-036-02716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 입금자명: 사역자000



함께해 4 | 오병이어 사역후원

YW 지역의 건강한 변화와 회복을 위해 우선 긴급한 필요 재정으로 사용됩니다.
신한은행 100-035-952967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함께해 5 | 오병이어하우스

오병이어 훈련 센터 및 안식관 마련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세요.
공동체 영성훈련, 선교훈련을 통해 사역자를 세우고, 선교사 재교육과 장기사역자들의
정서적 건강과 심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써 가족 신앙공동체를 준비합니다.

신한은행 100-036-027190 재단법인 오병이어선교재단

오병이어선교회

지	금	여	기
우	리	함	께
나	누	어	요

(재)오병이어선교재단 후원 | 신한 100-035-952967



홈페이지

www.yellowwindow.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yellowwindow52



인스타그램

[fngn_52](https://www.instagram.com/fngn_52)



유튜브

<https://url.kr/2uflmb>



오병이어선교회

Food & Nutrition for Good News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의 건강한 회복과 변화를 위한 총체적 선교로
「오병이어선교회」와 「위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연합합니다.